

여중생들의 월경력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송민선 · 최찬현^{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Relationships between Menstrual Histor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Middle School Girls

Min Sun Song, Chan Hun Choi^{1*}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strual histor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middle school girls. The study included 165 students. Self image, optimism and self-efficacy are measu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each.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ANOVA and Scheffe's test. The proportion of the students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high self image($p=.002$). The self image was higher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 than the group who take daily($p=.009$) and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24$). Emotional tone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08$), and psychopathology was higher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p=.008$). Family relationship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04$),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p=.007$) and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15$). Mastery and coping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26$). Adaptation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34$). Also optimism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05$), in the group who experienced menorrhagia a few years after menarche($p=.014$) and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27$). Self-efficacy was higher in the group of polymenorrhea($p=.029$). Because menstruation is related with psychiatric factors, it is necessary to ask menstruation history and psychiatric status.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Key words : menstrual cycle, self image, optimism, self-efficacy, middle school girl

서론

한의학에서는 月經을 단순한 여성 성주기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아닌 여성 생식기와 전신 신체기능의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1,2)},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氣機가 울체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것이 月經으로 반영된다고 본다^{3,4)}.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臨証指南醫案·調經』에서는 “女子는 肝으로 先天을 삼으며 陰의 성질로써 응결되어 쉽게 울체되니 울체된 즉 氣와 血도 울체된다.”⁵⁾라고, 『女科經綸·月經門』에서는 “부인은 남편을 따르게 되어 모든 일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으므로 늘 우울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울체된 氣가 많다.”⁶⁾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부인의 여러 질병을 치료할 때는 아울러 근심과 걱정도 덜어주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갖도록 한다. 그러면 질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⁶⁾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婦人大全良方·室女經閉成勞方論』에서는 “대개 憂愁思慮하면 心을 傷하게 되고, 心을 傷하게 되면 血이 逆竭하게 되고 血이 逆竭하게 되면 神色이 먼저 흩어지게 되면서 월경이 먼저 閉하게 된다.”⁷⁾라고 하였고, 『女科經綸·月經門』에서는 “분노가 지나치면 기가 역행하고 혈도 역행하게 된다. 기혈이 장부나 경락에서 멎거나 역행하면 또한 월경이 이로 인하여 고르지 못하게 된다.”⁶⁾로 기술하고 있어, 여성생식기관이 내분비적 측면에서 여성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갈등 등에 의한 생리적 변조에 매우 쉽게 반응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內傷七情을 부인과질환의 주요 병인으로 파악하고 月經失調, 無月經, 月經痛, 經行頭痛, 經行乳脹, 經行情志

* 교신저자 : 최찬현,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mensolog@hanmail.net, · Tel : 061-330-3515

· 접수 : 2013/02/06 · 수정 : 2013/02/13 · 채택 : 2013/03/28

異常 등을 七情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혼한 증상으로 기술하고 있다⁴⁾.

본 연구는 여성에 있어 月經이 인체의 중요한 건강지표이며, 月經이 심리적인 영향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의 월경상태와 심리적인 측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1개 중학교 학생들 중 初經을 시작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월경력과 심리적인 요인들을 설문조사하여 월경력과 심리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청소년기는 월경장애가 잘 유발되는 시기이며 차후 성인이 된 후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月經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로는 주로 월경태도를 변수로 한 연구⁸⁻¹⁰⁾, 월경곤란증¹¹⁾ 및 월경통¹²⁾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월경전기 증상과 심리적인 특성을 본 연구로는 걱정, 스트레스 및 우울에 대한 연구¹³⁾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처럼 학생들의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긍정 심리를 본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 심리를 위주로 본 이유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월경시기 동안에 부정 심리가 높아 긍정적인 월경태도가 중요시 된다는 연구결과⁸⁾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심리적인 요인과 월경이상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경을 시작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월경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¹⁴⁾을 통해 월경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였고,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설문을 통해 월경력과 심리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차후에 한의학에서 월경이상의 주요한 병인으로 七情傷과 같은 심리적인 병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함이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1개 중학교 학생들 중 초경을 경험한 여학생을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학년별로 1학년 34명(20.6%), 2학년 45명(27.3%), 3학년 86명(52.1%)이었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에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담당교사와 학생들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대상자가 직접 답변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자아상

자아상이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이 어우러진 총체로 자기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2) 낙관성

단일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낙관성은 성향적 낙관성이라고 하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¹⁶⁾

3) 자기효능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¹⁷⁾

4. 연구도구

1) 월경력

월경력에 대한 설문은 한방부인과 설문지¹⁴⁾를 통한 통경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초경연령, 월경출혈량, 출혈기간, 생리통시기, 생리통 통증정도, 월경주기, 월경이 주기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자아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Peterson 등¹⁸⁾이 제작한 자아상(Self-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ce: SIQYA)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의 설문¹⁹⁾인 총 88문항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 하위요인(정서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신체상, 적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의미한다(Table 1).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는 .93이었다. 하위요인인 정서상태 Cronbach' a는 .83, 충동통제 Cronbach' a는 .53, 정신병리 Cronbach' a는 .74, 가족관계 Cronbach' a는 .85, 친구관계 Cronbach' a는 .86, 대처능력 Cronbach' a는 .75, 신체상 Cronbach' a는 .67, 적응력 Cronbach' a는 .73이었다.

Table 1. The sub-factors of self-image

하위요인	내 용
정서상태	우울한 기분을 측정
충동통제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
정신병리	괴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
친구관계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와 만족, 친구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
대처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
신체상	자신의 신체와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
적응력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유능감을 측정

3) 낙관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Scheier 등²⁰⁾가 제작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고,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과 실험 참여자들이 낙관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4개의 허위문항(문항 2, 5, 6, 8; 예: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 (문항 1, 4, 10; 예: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고 기대한다)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문항 3, 7, 9; 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문항은 제외 하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조²¹⁾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 도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65였다.

4) 자기효능감

Sherer 등²²⁾이 자기효능감 척도(The self-efficacy scale)를 제작한 것을 홍²³⁾이 변안 후 신뢰도 계수와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김²⁴⁾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사용한바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가 .84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5점 척도를 자기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8이었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SAS Window용(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변인은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월경력에 따른 심리적 변인인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심리적 변인

대상자들의 심리적 변인 중 자아상의 평균 점수는 4.0±0.5점, 하부항목별로 정서상태(emotional tone)는 4.1±0.8점, 충동통제(impulse control)는 3.5±0.7점, 정신병리(psychopathology)는 3.9±0.7점,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는 4.5±0.7점,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는 4.3±0.9점,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은 4.1±0.7점, 신체상(body image)은 3.6±0.7점, 적응력(adaptation)은 3.8±0.7점, 낙관성(optimism)은 3.5±0.6점,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은 3.3±0.5점이었(Table 2).

2. 대상자들의 월경력

정상적인 월경량은 보통의 월경량으로 하루에 보통 패드 4-8개 사용하는 경우이며, 비정상적인 월경량은 하루에 보통 패드 4개 이하를 사용하는 과소출혈량의 경우와 하루에 보통 패드 8개 이상을 사용하는 과대출혈량이라 하여 세 군으로 구분하였다²⁵⁾. 대상자들의 월경력을 보면, 평균 초경연령은 13.3±0.9세였으며, 월경출혈량은 과소출혈량은 13명(7.9%), 보통 월경량은 88명(53.3%), 과대출혈량은 64명(38.8%)이었다.

출혈기간은 7일 이하의 정상인 경우가 137명(83.0%), 8일을 넘는 비정상인 경우가 28명(17.0%)이었고, 생리통 시기가 초경부터 계속 있었던 경우는 63명(38.2%), 초경이 있고나서 몇 년 후부

터 있었던 경우는 102명(61.8%)이었으며, 통증정도는 진통제를 먹을 정도가 아니어서 진통제를 안먹는 경우는 82명(49.7%), 통증으로 인해 간혹 진통제를 먹는 경우는 47명(28.5%),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경우는 36명(21.8%)이었다. 월경주기가 정상인 경우는 76명(46.1%), 비정상인 경우는 89명(53.9%)이었다(Table 3).

Table 2. The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165)

변수	Mean±SD
자아상	4.0±0.5
정서상태	4.1±0.8
충동통제	3.5±0.7
정신병리	3.9±0.7
가족관계	4.5±0.7
친구관계	4.3±0.9
대처능력	4.1±0.7
신체상	3.6±0.7
적응력	3.8±0.7
낙관성	3.5±0.6
자기효능감	3.3±0.5

Table 3. The menstrual history of subjects (N=165)

Variable	Mean±SD or n(%)
초경연령	13.3±0.9
월경출혈량	
과소출혈량	13(7.9)
보통	88(53.3)
과대출혈량	64(38.8)
출혈기간	
정상	137(83.0)
비정상	28(17.0)
생리통 시기	
초경부터	63(38.2)
초경이후	102(61.8)
생리통 통증정도	
진통제 안먹음	82(49.7)
진통제 간혹먹음	47(28.5)
진통제 매번먹음	36(21.8)
월경주기	
정상	76(46.1)
비정상	89(53.9)

4. 월경출혈량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월경출혈량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볼 때, 전체 자아상은 과소출혈량은 4.1±0.6점, 보통출혈량은 4.0±0.5점, 과대출혈량은 4.0±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과소출혈량은 4.2±1.0점, 보통출혈량은 4.1±0.8점, 과대출혈량은 4.1±0.7점, 충동통제는 과소출혈량은 3.5±0.6점, 보통출혈량은 3.5±0.7점, 과대출혈량은 3.5±0.6점, 정신병리는 과소출혈량은 4.1±0.8점, 보통출혈량은 3.9±0.7점, 과대출혈량은 3.9±0.6점, 가족관계는 과소출혈량은 4.5±0.7점, 보통출혈량은 4.5±0.7점, 과대출혈량은 4.5±0.8점, 친구관계는 과소출혈량은 4.6±1.0점, 보통출혈량은 4.3±0.9점, 과대출혈량은 4.2±0.9점, 대처능력은 과소출혈량은 4.3±0.8점, 보통출혈량은 4.0±0.7점, 과대출혈량은 4.2±0.7점, 신체상은 과소출혈량은 3.6±0.7점, 보통출혈량은 3.6±0.7점, 과대출혈량은 3.6±0.7점, 적응력은 과소출혈량은 4.1±0.8점, 보통출혈량은 3.8±0.7점, 과대출혈량은 3.9±0.6점으로 하위요인들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충동통제와 신체상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낙관성은 과소출혈량은 3.5±0.6점, 보통출혈량은 3.4±0.6점, 과대출혈량은 3.5±0.6점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과소출혈량은 3.0±0.9점, 보통출혈량은 3.2±0.5점, 과대출혈량은 3.4±0.5점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29).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과소출혈량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나 뚜렷한 점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Table 4).

5. 출혈기간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출혈기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은 출혈기간이 정상인 군이 4.1±0.5점으로 출혈기간이 비정상인 군 3.8±0.3점보다 높았다(p=.002).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출혈기간이 정상인 군이 4.2±0.8점으로 출혈기간이 비정상인 군 3.9±0.6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통제도 정상인 군이 3.5±0.7점보다 비정상인 군이 3.4±0.7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정신병리는 정상인 군이 3.9±0.7점, 비정상인 군이 3.9±0.6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가족관계는 정상인 군이 4.6±0.7점으로 비정상인 군보다 4.0±0.9점으로 높았다(p=.004). 친구관계는 정상인 군이 4.3±0.9점으로 비정상인 군 4.2±0.6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대처능력은 정상인 군이 4.1±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9±0.5점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정상인 군이 3.6±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5±0.6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적응력도 정상인 군이 3.9±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7±0.7점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출혈기간이 정상인 군이 3.5±0.5점으로 출혈기간이 비정상인 군 3.2±0.6점보다 점수가 높았다(p=.005). 반면, 자기효능감은 정상인 군이 3.3±0.6점으로 비정상인 군 3.2±0.4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생리통시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생리통시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은 생리통이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0±0.4점으로 생리통이 초경이후 몇 년 후부터 있었던 군 4.1±0.5점보다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1±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1±0.8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통제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4±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3.6±0.6점, 정신병리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9±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0±0.7점, 가족관계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4±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5±0.7점으로 초경부터 생리통이 있었던 군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구관계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4±0.8점으로 초경 이후 있었던 군 4.3±1.0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대처능력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1±0.6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 4.1±0.7점, 신체상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6±0.6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은 3.6±0.7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적응력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8±0.6점으로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은 3.9±0.7점보다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생리통이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3±0.6점으로 생리통이 초경이후 몇 년 후부터 있었던 군 3.5±0.5점보다 점수가 낮았으며(p=.014), 자기효능감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3±0.5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 3.3±0.5점으로 차이가 없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Table 4.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flow (N=165)

변수	과소출혈량 Mean±SD	보통출혈량 Mean±SD	과대출혈량 Mean±SD	F	p
자아상	4.1±0.6	4.0±0.5	4.0±0.5	0.43	.648
정서상태	4.2±1.0	4.1±0.8	4.1±0.7	0.03	.968
충동통제	3.5±0.6	3.5±0.7	3.5±0.6	0.03	.975
정신병리	4.1±0.8	3.9±0.7	3.9±0.6	0.61	.545
가족관계	4.5±0.7	4.5±0.7	4.5±0.8	0.17	.840
친구관계	4.6±1.0	4.3±0.9	4.2±0.9	0.85	.428
대처능력	4.3±0.8	4.0±0.7	4.2±0.7	2.83	.062
신체상	3.6±0.7	3.6±0.7	3.6±0.7	0.05	.950
적응력	4.1±0.8	3.8±0.7	3.9±0.6	1.66	.193
낙관성	3.5±0.6	3.4±0.6	3.5±0.6	0.42	.655
자기효능감	3.0±0.9	3.2±0.5	3.4±0.5	3.61	.029

Table 5.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period (N=165)

변수	정상 Mean±SD	비정상 Mean±SD	t	p
자아상	4.1±0.5	3.8±0.3	3.26	.002
정서상태	4.2±0.8	3.9±0.6	1.40	.165
충동통제	3.5±0.7	3.4±0.7	0.62	.536
정신병리	3.9±0.7	3.9±0.6	0.54	.593
가족관계	4.6±0.7	4.0±0.9	3.09	.004
친구관계	4.3±0.9	4.2±0.6	1.29	.203
대처능력	4.1±0.7	3.9±0.5	2.29	.026
신체상	3.6±0.7	3.5±0.6	1.17	.244
적응력	3.9±0.7	3.7±0.7	1.53	.128
낙관성	3.5±0.5	3.2±0.6	2.82	.005
자기효능감	3.3±0.6	3.2±0.4	1.38	.168

Table 6.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pain period (N=165)

변수	초경부터 Mean±SD	초경이후 Mean±SD	t	p
자아상	4.0±0.4	4.1±0.5	-0.68	.497
정서상태	4.1±0.7	4.1±0.8	-0.36	.718
충동통제	3.4±0.7	3.6±0.6	-1.68	.096
정신병리	3.9±0.7	4.0±0.7	-0.51	.609
가족관계	4.4±0.7	4.5±0.7	-1.21	.227
친구관계	4.4±0.8	4.3±1.0	1.07	.287
대처능력	4.1±0.6	4.1±0.7	-0.15	.884
신체상	3.6±0.6	3.6±0.7	-0.30	.765
적응력	3.8±0.6	3.9±0.7	-0.84	.400
낙관성	3.3±0.6	3.5±0.5	-2.47	.014
자기효능감	3.3±0.5	3.3±0.5	-0.85	.395

7. 생리통의 통증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생리통 통증정도에 따라 진통제 복용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은 월경곤란 증상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70%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²⁶⁾와 통증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약물투여를 생리통의 증증도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생리통의 통증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0±0.5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2±0.5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8±0.5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9),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전체 자아상의 점수가 높았다.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1±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3±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9±0.8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통제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5±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5±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4±0.6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병리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0±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1±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6±0.7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8),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정신병리의 점수가 높았다.

가족관계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5±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7±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4.2±0.7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7),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가족관계의 점수가 높았다. 친구관계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3±1.0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5±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4.2±0.9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처능력도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2±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1±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9±0.6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6±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7±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5±0.7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적응력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9±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9±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7±0.7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5±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4±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3±0.4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3±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4±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3±0.4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Table 7.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degree of menstrual pain (N=165)

변수	진통제 안먹음 ^a Mean±SD	진통제 간혹먹음 ^b Mean±SD	진통제 매번먹음 ^c Mean±SD	F	p	Scheffe'
자아상	4.0±0.5	4.2±0.5	3.8±0.5	4.75	.009	b>c
정서상태	4.1±0.7	4.3±0.8	3.9±0.8	2.65	.074	
충동통제	3.5±0.7	3.5±0.7	3.4±0.6	1.04	.356	
정신병리	4.0±0.7	4.1±0.6	3.6±0.7	4.99	.008	b>c
가족관계	4.5±0.7	4.7±0.7	4.2±0.7	5.18	.007	b>c
친구관계	4.3±1.0	4.5±0.8	4.2±0.9	1.04	.355	
대처능력	4.2±0.6	4.1±0.8	3.9±0.6	2.62	.076	
신체상	3.6±0.6	3.7±0.7	3.5±0.7	0.83	.436	
적응력	3.9±0.7	3.9±0.6	3.7±0.7	1.85	.160	
낙관성	3.5±0.6	3.4±0.6	3.3±0.4	1.76	.175	
자기효능감	3.3±0.6	3.4±0.6	3.3±0.4	0.69	.504	

8. 월경주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월경주기의 가장 보편적인 간격은 24-32일 사이로,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월경주기가 길거나 혹은 월경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월경기간은 3-7일이라는 근거하여 월경주기를 설정하였다²⁷⁾.

월경주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 자아상은 월경주기가 정상인 군이 3.9±0.5점으로 월경주기가 비정상인 군 4.1±0.5점보다 낮았다(p=.024). 하위요인을 보면, 정서상태는 월경주기가 정상인 군이 3.9±0.8점으로 월경주기가 비정상인 군 4.2±0.8점보다 낮았다(p=.008). 그러나, 충동통제는 정상인 군이 3.6±0.7점, 비정상인 군이 3.4±0.6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정신병리는 정상인 군이 3.9±0.7점, 비정상인 군이 4.0±0.7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가족관계는 정상인 군이 4.3±0.7점으로 비정상인 군 4.6±0.7점보다 낮았다(p=.015). 그러나, 친구관계는 정상인 군이 4.2±1.0점, 비정상인 군이 4.4±0.9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대처능력은 정상인 군이 4.1±0.7점, 비정상인 군이 4.1±0.7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28일 정상인 군이 3.5±0.7점, 비정상인 군이 3.7±0.6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적응력은 정상인 군이 3.7±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9±0.6점보다 낮았다(p=.034).

낙관성은 정상인 군이 3.3±0.6점으로 비정상인 군 3.5±0.5점보다 낮았으며(p=.027), 자기효능감은 정상인 군이 3.2±0.5점, 비정상인 군 3.3±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8.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cycle (N=165)

변수	정상 Mean±SD	비정상 Mean±SD	t	p
자아상	3.9±0.5	4.1±0.5	-2.28	.024
정서상태	3.9±0.8	4.2±0.8	-2.67	.008
충동통제	3.6±0.7	3.4±0.6	1.30	.195
정신병리	3.9±0.7	4.0±0.7	-1.23	.220
가족관계	4.3±0.7	4.6±0.7	-2.45	.015
친구관계	4.2±1.0	4.4±0.9	-0.73	.466
대처능력	4.1±0.7	4.1±0.7	-1.54	.125
신체상	3.5±0.7	3.7±0.6	-1.79	.076
적응력	3.7±0.7	3.9±0.6	-2.13	.034
낙관성	3.3±0.6	3.5±0.5	-2.35	.027
자기효능감	3.2±0.5	3.3±0.5	-1.53	.127

고 찰

본 연구는 여중생들의 월경력과 긍정심리지표인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이들 심리적인 요인들과 월경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시행된 것이다. 연구대상을 청소년으로 삼은 것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²⁸⁾에서 중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유병률은 각각 23.2%와 6.6% 비율로 청소년들의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 비율이 높으며, 월경에 대한 감정에 있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고 월경증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연구⁹⁾들을 볼 때 월경이 질병상태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한 월

경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서 긍정적인 월경태도 형성과 월경불편감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⁸⁾, 여고생들에서 월경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으며, 월경에 대한 대처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⁹⁾, 여성 정신질환자와 정상여성의 월경증상을 비교한 결과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월경증상 정도가 심하였으며, 성격특성과의 비교에서도 심기증, 우울증, 히스테리, 망상증, 정신분열증 등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 월경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비교 연구²⁹⁾,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mptom)에 대한 증상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월경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연구들은 아니었다. 또한 심리적인 영향과 월경에 대한 연구로는 여대생들에 있어 월경전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우울, 스트레스, 걱정 순이라고 보고한 연구¹³⁾가 있어 월경증상들이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은 긍정적 심리에 대한 연관성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심리부분을 요인으로 삼은 것은 월경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월경전증후군 뿐만 아니라 월경시기 동안에 여중생들에게선 부정심리가 높아 학생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월경태도와 올바른 성정체감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는 보고에 따라⁸⁾ 긍정적인 심리 지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여중생들에게 있어 월경이라고 하는 큰 생리적 변화를 잘 적응하여 자신의 정서상태나 행동들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여중생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정립하고 낙관성 같은 긍정심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변수들로 설정하게 되었다.

월경력과의 연관성을 관찰한 심리적 특성들 중 자아상은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생긴 자아개념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자신의 성격발달이나 감정,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³⁰⁾.

본 연구에서 자아상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이 어우러진 총체로 자기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¹⁵⁾, 자아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자아상 점수가 높을수록 출혈기간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간혹 먹는 경우가 진통제를 매번 먹는 경우보다 자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경주기가 비정상인 군에서 자아상 점수가 높았다.

자아상의 세부적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항목은 정서상태, 정신병리, 가족관계, 대처능력 및 적응력이었으며,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 정서상태 지표는 월경주기가 길어서 비정상인 경우에서 좋았으며, 괴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하는 정신병리 지표가 양호할수록 진통제 복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가족관계 지표가 양호할수록 출혈기간이 정상이고, 진통제 복용이 적었으며, 비정상적으로 월경주기가 긴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하는 대처능력 지표가 양호할수록 출혈기간이 정상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는 적응력 지표는 비정상적으로 월경주기가 긴 경우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²⁹⁾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월경력과의 연관성을 보면, 출혈기간이 정상이고, 초경이후 몇 년 후에 생리통이 시작된 경우나 비정상적으로 월경주기가 긴 경우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이 걱정,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의 반대로 판단한다면, 월경전기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걱정, 스트레스, 우울과 모두 유의하고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¹³⁾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로¹⁷⁾, 본 연구에서 파악된 월경력과의 연관성을 보면 월경출혈량에서 과대출혈량인 군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심리요인들과 월경력과는 출혈량, 출혈기간, 진통제의 복용, 및 월경주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출혈량이 많고, 출혈기간이 정상이고, 진통제의 복용이 적고, 월경주기가 긴 경우에 이들의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한의학적인 관점과 연관지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월경이상 중 과다월경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였던 이등³¹⁾은 과다월경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과다월경의 증상은 월경과다가 주증상이나 이에 수반되는 다른 증상들을 미루어 변증해야 되며 다른 부수적인 증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러한 월경의 패턴과 심리적인 요인과의 연관성을 살피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본 연구와 같이 월경에 대한 양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한의학적인 변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김 등³²⁾이 월경이 빨라지는 월경전기증에 대해 한의학서적 57종을 분석한 후 월경전기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鬱熱이며, 이는 다시 肝經怒火, 肝經鬱火, 肝鬱火熱, 肝鬱, 등으로 분류하여 주로 肝脾鬱火로 인하여 월경전기증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여 심리적인 요인과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³³⁾도 월경전 증후군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해 본 결과 간기울결형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우울경향이 강한 소음인³⁴⁾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간기울결로 인한 월경전 증후군이 높았다고 하여 심리적인 요인과 월경부조에 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鬱熱과 肝氣鬱結 등을 월경양태와 연관짓는 것은 간기의 소설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만 氣血이 화평해지고 심정이 태평스럽게 되며, 만약 외계의 자극으로 대노하거나 과도하게 억울하거나 하면 간의 소설기능은 지적으로 기기의 통창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간의 장혈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월경부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홍 등³⁵⁾의 주장과도 부합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분노가 지나치면 기혈이 逆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월경이 不調하게 된다'는⁶⁾ 한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인 변인들이 신체적인 월경 양태의 변화에서 일정부분 유의성 있게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의학적 七情傷과 같은 심리적인 병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결 론

여중생들의 월경력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월경출혈량과 자기효능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출혈기간과 자아상, 낙관성, 자아상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대처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통시기와 낙관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생리통의 통증정도와 자아상, 자아상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신병리, 가족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경주기와 자아상, 낙관성, 자아상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상태, 가족관계, 적응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심리적인 변인들이 신체적인 월경 증상에서 일정부분 유의성 있게 발견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의학적인 七情傷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로 인한 월경이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 여성의 월경과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한방진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월경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중학교 1, 2, 3학년생 중 월경이 시작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 모든 여중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월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의학적 지표들을 동시에 조사하며, 월경이 시작되지 않은 여중생들과 비교를 통해 월경력과 심리적인 변인들과의 관련성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이인선, 김규근. 월경이상을 가진 여고 1학년 학생의 병기산출빈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9: 5-12, 2005.
2.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 행림출판, p 114, 1994.
3. 정행규. 특강 동의보감.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p 79, 2007.
4. 한방여성의학 편찬위원회. 한방여성의학 I. 서울, 정담, pp 77-78, 122-123, 2007.
5.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 666, 2000.

6. 蕭損 著, 김동일, 김민성 옮김. 女科經綸 新解. 서울, 보명, pp 24-25, 88, 2006.
7.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p 22, 1992.
8. 전정희, 이해정. 체험위주 월경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태도 및 월경불편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4(2):93-109, 2007.
9. 정미경. 여고생의 월경지식, 태도, 증상 및 대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10. 이충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초경 경험과 월경태도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1. 박영수, 홍선심.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 특성과 월경곤란증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4: 97-115, 2003.
12. 신수희, 양혜경, 조영채. 도시지역 일부 여자고등학생들의 월경통과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1):91-101, 2007.
13. 최교훈. 걱정, 스트레스 및 우울이 월경주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14. 조혜숙. 한방부인과 설문지를 통한 痛經에 관한 조사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2.
15. 이춘재, 박금주. 자기상(self-image)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7(2):119-135, 1994.
16. Scheier, M.F., Carver, C.S.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201-228, 1992.
17. Vealey, R.S. Conceptualization of sport-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psychology 8: 221-246, 1986.
18. Peterson, A.C., Schulenberg, J.E., Abramowitz, R.H., Offer, D., Jarcho, H.D.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ST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93-111, 1984.
19. 김선희. 중학생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자기상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12.
20. Scheier, M.F., Carver, C.S., Bridge, M.W.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1994.
21. 조남미. 중학생의 낙관성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22.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1982.
23.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24. 김주애.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9.

25. 홍선심.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특성과 월경곤란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26. Campell, M.A., McGrath, P.J. Use of medication by adolescents for the management of menstrual discomfor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1(9):905-913, 1997.
27. 윤태영. 여자 운동선수의 월경주기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증상, 균형능력, 관절이완성 및 성호르몬의 변화.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2009.
28. 장형주. 여고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위험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29. 유병국. 여성 정신 질환자와 정상 여성의 월경 증상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30. 손광민, 차영아, 남상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1: 131-153, 2008.
31. 이정화, 유동열. 월경과다의 원인, 증상, 치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2):577-600, 1999.
32. 김금원, 박병열. 월경전기증의 원인, 치법, 처방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3(1):1-26, 1989.
33. 김철원. 월경전증후군에 대한 연구(II).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0(2):183-199, 1997.
34. 박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 체질 및 성격특성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 心性研究 15(2):87-177, 2000.
35. 홍희택, 이태균. 월경부조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7(1):151-167, 1994.